

미 증시, 경제둔화(bad news)에 긴축 우려 덜며 상승

김석환 seokhwan.kim@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고용 둔화

•미 증시는 10월 고용보고서와 서비스업 PMI의 둔화 소식에 상승 마감. 이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를 완화시키며 국채수익률 전반의 하방 압력을 높여. 특히,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전일대비 15bp나 하락하는 ‘불 스티프닝(Bull Steepening)’ 나타나며 장단기금리차는 오히려 축소. 달러인덱스는 지난 9월 2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유가 역시 주간기준 6% 가까이 하락.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는 최근 5일 동안 30%나 급락하며 202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 기록. (다우 +0.66%, 나스닥 +1.38%, S&P500 +0.94%, 러셀2000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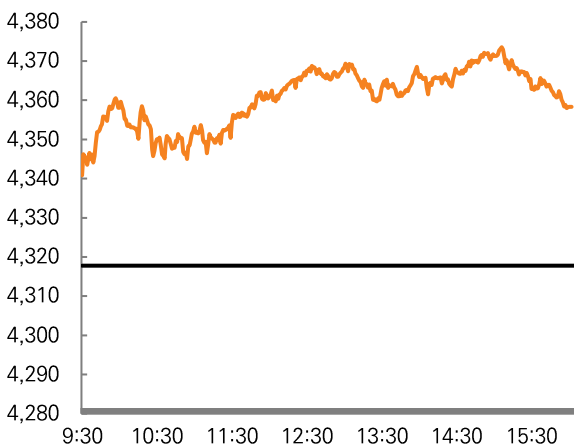
특징 종목: 금융주 강세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섹터 중, 에너지(-1.01%)를 제외한 10개 섹터 모두 상승. 특히, 장기채 수익률 하락 영향으로 부동산(+2.35%) 섹터가 전일에 이어 2%대 강세 기록. 경기 방어 성격이 높은 필수소비재(+0.09%), 건강관리(+0.51%)는 상대적으로 부진.
 (상승) 익스피디아(+18.84%), 드래프트킹스(+16.46%), 인슐렛(+15.76%), 파라마운트 글로벌(+15.44%), 가트너(+14.55%) 등 시장 예상보다 나은 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강세. 또한 금리 정점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며 씨티그룹(+3.53%),뱅크오브아메리카(+2.90%), JP모건체이스(+1.12%) 등 대형 은행을 비롯한 중소형 및 지역은행주 강세.
 (하락) 애플(-0.52%)은 4분기 연속 매출 둔화와 연말 매출에 대한 보수적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위험 자산 선호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

한국 증시 전망: 제한적 Risk-On

•MSCI 한국 지수 ETF는 2.79%, MSCI 신흥 지수 ETF는 2.0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7.6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6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86% 상승. KOSPI는 0.5~0.8%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외국인은 반도체 ‘Long(매수)’, 2차전지 ‘Short(매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기관은 반도체와 2차전지를 동시에 담는 ‘바벨전략’을 취하는 모습.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인덱스 하락으로 우호적인 증시 분위기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되는 매크로(경기) 불확실성은 상승폭을 제한시킬 것으로 전망. 또한 주말 사이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만큼 외국인 수급에 미칠 영향 확인 필요.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68.34	+1.08	상해종합	3,030.80	+0.71
KOSDAQ	782.05	+1.19	홍콩항셍	17,664.12	+2.52
DOW	34,061.32	+0.66	인도센섹스	64,363.78	+0.44
NASDAQ	13,478.28	+1.38	유로스톡스 50	4,174.67	+0.12
S&P 500	4,358.34	+0.94	영국	7,417.73	-0.39
캐나다	19,824.85	+1.01	독일	15,189.25	+0.30
일본	31,949.89	+1.10	프랑스	7,047.50	-0.1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둔화: 긍정과 부정 사이

미 증시는 10월 고용보고서와 서비스업 PMI의 둔화 소식에 상승 마감. 이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를 완화시키며 국채수익률 전반의 하방 압력을 높여. 특히,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전일대비 15bp 나 하락하는 ‘불 스티프닝(Bull Steepening)’ 나타나며 장단기금리차는 오히려 축소. 달러인덱스는 지난 9월 2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유가 역시 주간기준 6% 가까이 하락.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는 최근 5일 동안 30%나 급락하며 202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 기록.

PART 1. 긍정

10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 수정치 29.7만명 및 시장 예상 18만명을 하회한 15만명으로 나와. 이는 그 동안 시장이 기다려온 연준의 피벗 조건 중 하나인 ‘노동시장의 냉각’을 확인한 것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음에 환호. 실제 이 날 2년물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15bp나 하락하며 지난 8월 29일 이후 가장 큰 일일 낙폭을 기록.

이로써 3개월 평균 비농업취업자수는 23.3만명에서 20.4만명으로 감소하였고, 시간당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2%(전월 0.2%, 예상 0.3%) 증가하며 시장 예상을 하회.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은 62.7%(전월 62.8%, 예상 62.8%), 실업률은 3.9%(전월 3.8%, 예상 3.8%)로 2022년 1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와.

세부 업종별로는 의료(+5.8만명), 정부(+5.1만명), 사회지원(+1.9만명)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3.5만명)은 파업 영향으로 전월(+1.7만명)과 예상(-1.0만명)을 크게 하회한 고용 감소가 나타나. 또한 일자리 증가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레저 및 숙박업(+1.9만명)은 지난 12개월 평균 +5.2만명을 크게 하회.

10월 ISM 서비스업 PMI는 51.8로 전월 53.6과 예상 53.0을 모두 하회하며 5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신규주문(이전 51.8→ 발표 55.5)은 증가하였지만, 생산(58.8→54.1), 고용(53.4→50.2), 신규수출주문(63.7→48.8) 등 주요 항목들이 급감.

PART 2. 부정

전체적으로 고용은 감소하고 실업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인구는 전월대비 감소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어. 고용과 실업 간의 차이는 2022년 4월 이후 가장 낮게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가파르게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만, 10월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이 있었던 만큼 일시적인지 또는 추세적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 실제 실직기간이 5주 미만인 근로자는 전월대비 21.7만명 증가하였지만, 5주에서 14주 미만은 20.8만명 감소하였기 때문.

10월 고용보고서와 서비스업PMI 둔화는 단기적으로는 국채수익률과 달러인덱스의 하방 압력을 높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매크로(경기)’ 불확실성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 유가는 글로벌 원유 수요 부진을 반영하며 하락. 또한 글로벌 해운사 Maersk는 지난 금요일,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과 전망, 1만명의 감원 소식을 전해. 특히, 수요 둔화로 인해 가격(운임) 하락과 비용 기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뉴 노멀(New Normal)’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혀.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글로벌 물동량이 전년대비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부동산 · 금융 강세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섹터 중, 에너지(-1.01%)를 제외한 10개 섹터 모두 상승. 특히, 장기채 수익률 하락 영향으로 부동산(+2.35%) 섹터가 전일에 이어 2%대 강세 기록. 경기 방어 성격이 높은 필수소비재(+0.09%), 건강관리(+0.51%)는 상대적으로 부진.

(상승) 익스피디아(+18.84%), 드래프트킹스(+16.46%), 인슐렛(+15.76%), 파라마운트 글로벌(+15.44%), 가트너(+14.55%), 트루패니언(+14.30%), 아이칸 엔터프라이즈(+13.08%), 블록(+10.69%) 등 시장 예상보다 나은 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강세. 또한 금리 정점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며 씨티그룹(+3.53%), 뱅코브아메리카(+2.90%), JP모건체이스(+1.12%) 등 대형 은행을 비롯한 중소형 및 지역은행주 강세.

(하락) 애플(-0.52%)은 4분기 연속 매출 둔화와 연말 매출에 대한 보수적 가이드نس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위험 자산 선호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 다만, 빌 홀딩스(-25.19%)와 포티넷(-12.35%)은 예상보다 낮은 분기 실적과 향후 가이드نس 하향 조정으로 급락. 특히, 빌 홀딩스는 KeyBank가 주가 상승의 단기 촉매제가 부족하고 거시적 요인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15.43%)는 부진한 실적과 전망, 1만명 감원 계획 발표에 급락.

상품 및 FX시장 동향

달러, 6주 최저 기록

(외환) 달러인덱스는 10월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고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했다는 사실에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크게 완화. 이에 달러인덱스는 지난 9월 20일 이후 가장 낮은 105.07을 기록. 반대로 유로화는 7주만에 최고치를 기록.

(금리) 미 국채 수익률은 장기물보다 단기물 낙폭이 더 큰 ‘불 스티프닝(Bull Steepening)’이 나타나며 10년물과 2년물 간 장단기금리차는 오히려 전일대비 6.4bp 축소된 -26.6bp 기록. 이는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을 단기물인 2년물이 더 크게 반영했기 때문.

(원자재) WTI 원유 선물은 이번 주에만 6% 가까이 하락하며 지난 주(-2.9%)에 이어 2주 연속 하락. 최근 가격 하락은 경기 위축 및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크게 작용.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의 천연가스 공급 재개 소식에 2.5%나 하락.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 Risk-On

MSCI 한국 지수 ETF는 2.79%, MSCI 신흥 지수 ETF는 2.0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07.6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6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86% 상승. KOSPI는 0.5~0.8%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위험자산 선호(Risk-On)’가 두드러지며 국내증시는 4% 넘게 상승 마감.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업종에는 큰 차이 생겨. 외국인은 반도체 ‘Long(매수)’, 2차전지 ‘Short(매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기관은 반도체와 2차전지를 동시에 담는 ‘바벨전략’을 취하는 모습.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인덱스 하락으로 우호적인 증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되는 매크로(경기) 불확실성은 상승폭을 제한시킬 것으로 전망. 또한 주말 사이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만큼 외국인 수급에 미칠 영향 확인 필요.



최근 5일 기준 ‘금융, 부동산’ BEST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73	대형 가치주 ETF (IVE)	+1.27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1.86
소매업체 ETF (XLY)	+1.41	소형 가치주 ETF (IWN)	+2.70
온라인소매 ETF (EBIZ)	+5.00	대형 성장주 ETF (VUG)	+1.08
미국 인프라 ETF (PAVE)	+1.24	중형 성장주 ETF (IWP)	+2.40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2.79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3.67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1.25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81	미국 국채 ETF (IEF)	+0.77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2.62	하이일드 ETF (JNK)	+1.13
바이오섹터 ETF (IBB)	+2.54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2.52	물가연동채 ETF (TIP)	+0.51
반도체 ETF (SMH)	+2.33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4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부동산	220.12	+2.35	+8.54	+4.55
소재	495.88	+1.55	+5.10	+1.02
커뮤니케이션	226.89	+1.39	+6.54	-0.92
금융	561.39	+1.32	+7.35	+2.19
경기소비재	1,268.86	+1.21	+7.21	+0.65
IT	3,048.66	+1.12	+6.84	+1.92
산업재	858.95	+0.82	+5.29	+0.76
유틸리티	313.83	+0.60	+5.22	+8.03
헬스케어	1,484.19	+0.51	+3.48	-2.05
필수소비재	726.66	+0.09	+3.25	+3.14
에너지	663.24	-1.01	+2.26	+0.98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0.51	-2.36	-5.88	Dollar Index	105.021	-1.04	-1.44
브렌트유	84.89	-2.26	-4.83	EUR/USD	1.0731	+1.03	+1.57
천연가스	3.52	+1.24	+11.09	USD/JPY	149.39	-0.70	-0.18
금	1,999.20	+0.29	+0.04	GBP/USD	1.2380	+1.45	+2.13
은	23.29	+1.92	+1.74	USD/CHF	0.8988	-0.79	-0.39
알루미늄	2,254.00	+1.19	-0.55	AUD/USD	0.6513	+1.23	+2.81
전기동	8,175.50	+0.40	+0.43	USD/CAD	1.3658	-0.59	-1.53
아연	2,524.50	+1.88	+2.39	USD/RUB	92.6949	-0.54	-1.73
옥수수	477.25	+1.54	-0.73	USD/BRL	4.9032	-1.06	-1.70
밀	572.50	+1.24	-0.52	USD/CNH	7.2888	-0.52	-0.61
대두	1,351.75	+1.77	+2.44	USD/KRW	1,322.40	-1.53	-2.47
커피	170.90	+3.36	+6.18	USD/KRW NDF1M	1,307.60	-1.87	-3.4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572	-8.66	-26.22	스페인	3.684	-8.50	-24.30
한국	4.100	-6.00	-19.00	포르투갈	3.319	-8.30	-24.00
일본	0.926	0.00	+4.50	그리스	3.956	-14.30	-21.40
독일	2.645	-7.20	-18.70	이탈리아	4.513	-11.80	-29.1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